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제354호 2025년 10월 12일(다해)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2008.11.10. 가톨릭상지대학 두봉관>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한 15,1)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어제와 오늘>: 가톨릭농민회 창립 30주년 기념 미사 및 토론회

제1독서 열왕기 하권 5,14-17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2,8-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복음 루카 17,11-19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감사에서 자비로

군종교구 비승 본당
백동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제가 군에서 인성교육을 할 때 병사들에게 자주 교육하는 주제는 “감사하며 살기”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교육합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남이 선의를 가지고 베푸는 호의를 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번의 교육만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잘 바꿀 수 없기에 병사들에게 감사일기 노트를 주고 일기처럼 하루의 감사를 적게 합니다.

제1독서에서 시리아 장수 나아만은 피부병이 있었지만 예언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여 병이 나았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챙겨 엘리사에게 가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병이 나은 기적 체험은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초대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건강만 챙긴 다음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 복음은 나아만과 같이 이방인이었던 치유받은 나병환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청하고 치유받았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나머지 아홉 사람의 삶은 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나머지 아홉과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를 두고 병이 나은 이후의 삶을 상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느님 자비를 더 잘 발견하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은총이 펼쳐졌을 겁니다.

군에서는 회복탄력성 교육, 외부강사를 초빙한 여러 인성교육을 병사들에게 실시하지만 군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병사들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시간과 공간의 감옥에 갇혀서 통제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짜증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활관 안에서 서로 다른 성향의 전우들과 살다보면 사람을 참아줘야 하는 인내의 고통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군생활에서 누군가 나보다 한 걸음 더 걷고, 한 번 더 수고했기에 내가 좀더 군생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감사와 배려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자비를 입는 것도 베푸는 것도 모두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58회 군인주일입니다.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든, 직업군인으로 사는 간부든 군인은 국민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며 복무합니다. 군생활을 했던 형제님들이라면 군을 부정적으로 보고, 일부 어른들은 옛날보다 더 오른 병사월급에 요즘 병사들의 군 생활을 쉽게 평가하실 수 있겠지만 군에서 몸 담고 있는 군인들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군 사목에 헌신하는 군종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톨릭농민회 창립 30주년 기념 미사 및 토론회

표지 사진 설명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는 1990년대 초반 생명농업, 생명공동체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환경과 생명운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도·농 교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통해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며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농업·농촌·농민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명공동체운동에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는 ‘30주년 기념미사 및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공동체로의 접근을 위한 제도적 보완, 귀농·귀촌 장려를 통한 고령화 문제 극복, 농촌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발전을 통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생명공동체운동 확대, 지역농업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적 보완에 대해 회원과 활동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의 30년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과 희망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사향: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분회)-판매(우리농 매장)- 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목상글을 담습니다.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시성기원 성지순례(4차)

-주님은 뉘시기에, 믿음은 무엇이기예-

정상동 본당 이교철 사라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성지순례를 완주하고 싶은 마음과 최양업 신부님께 치유의 전구를 청하고 싶은 간절함에 성거 산성지와 남방제 성지를 다녀왔다.

팔월의 마지막 날은 여전히 무더웠고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무명의 순교자들 줄무덤 터에서 연세 드신 교우 분들이 묵묵히 기도하고 순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이기예 기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간의 결단을 내린 순교자들과 주님이 뉘신지 정확히 다 말할 수는 없어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심을 순례로 고백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불사하였고 어르신들은 지속되는 신심으로 지상 순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순교자들 줄무덤에서 나 자신을 돌아봤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순명과 겸손을 입으로 되뇌지만 막상 곤경에 처하면 두려움에 젖어 불안해하는 얇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내가 따라야 할 것은,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바칠 수는 없어도 주님을 선택한 그들의 뜨거운 마음과 연세 드신 교우분들처럼 묵묵히 순례하는 일상의 믿음이었다.

방방곡곡에 새겨진 최양업 신부님의 발걸음과 무명의 순교자들의 붉은 마음은 보행이 불편한 연세 드신 형제 자매님들의 순례여정으로 이어져서 신앙의 유산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적 삶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번 성지 순례에서 내가 드린 기도는 “어떠한 처지에서 서도 주님께 감사드리고 순명 하겠습니다.” 였다.



2026년 가톨릭안동 주보1면 사진공모

공동의 집 지구를 가꾸고 돌보는 모습이나, 일상 속 하느님과 함께한 시간을 기록한 사진을 공모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25년 10월 26일(주일)까지

상세안내 : 본당게시판 및 교구 홈페이지



▶구글폼

프랑스 화가 선교사 앙드레 부통 벽화 사진전 벽화, 다시 만난 풍경



•일 시 : 9. 1(월)~ 11. 14(금) 10:00~ 17:00

•장 소 : 안동 교구청 3층 전시실



교구장 동정



10월 9일(목)
 • 박석희 이냐시오 주교님
 선종 25주기 미사,
 • 어르신의 날(의성지구)
 10월 12일(일)
 • 2027 서울 WYD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및 청소년 축제
 10월 13일(월)
 • 주교회의의 추계 정기총회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10월 14일(화) 김중섭 갈리스토 신부
 10월 17일(금) 김재문 이냐시오 신부

교 구

교구 위원회·제단체장 모임

일 시: 10. 11(토) 15:00
 장 소: 교구청 3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 교구 위원회/단체 대표
 (단체장 또는 대리인)
 준비물: 2026년 연간계획서(안)

10월 열린성경 강좌

일 시: 10. 13(월) 19:30~ 21:30
 장 소: 갈전 마티아 본당
 준비물: 성경, 필기구, 참가비 5,000원

공소 수녀·선교사모임

일 자: 10. 14.(화)~ 15(수)
 장 소: 봉화 예던길 선유교

신기동 성당 60주년 감사미사

일 자: 10. 26(주일)
 미 사: 14:30(주교님 집전)

제 단 체

교구 성령 새신 봉사회 10월 기도회

일 시: 10. 26(주일) 16:00
 장 소: 의성지구 / 의성 본당
 지 향: 성령의 위로와 희망의 기도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영양 고춧가루 판매(1KG포장)

보통맛 35,000원 / 매운맛 36,000원
 고추장용 보통맛 37,000원 / 매운맛 39,000원
 *주문·문의: 010-3813-4405
 제작: 농협 351-0375-1299-03 안동교구

수 도 회 · 피 정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일 시: 10. 18(토) 14:00
 장 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 의: 010-3800-1579

성모술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기 간: 10. 17(금)~ 19(일)/ 11. 7(금)~ 9(일)/
 12. 12(금)~ 14(일)
 매월 둘째주 금~일 (2박 3일)
 문 의: (010)3209-3955 문자접수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순례피정

제주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위령성월피정: 11. 2(주일)~4(화)
 제주순례: 10. 27(월)~29(수), 11. 22(토)~25(화)
 (추자도성지순례), 12. 6(토)~8(월),
 12. 12(금)~14(주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일몰·일출):
 12. 31(수)~1. 3(토)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 9(금)~11(주일),
 1. 15(목)~18(주일), 1. 23(금)~25(주일),
 1. 30(금)~2. 1(주일), 2. 6(금)~8(주일),
 2. 22(주일)~24(화), 2. 27(금)~3. 1(주일)
 면형의 집: 064-732-4702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일 시: 매주 화요일 20:00~ 21:00
 대 상: 20~ 40세 미혼여성
 문 의: 010-9353-1773

기 타

가톨릭신문 로고 & 제호 디자인 공모

일 정: 10. 13(월)~ 12. 19(금)
 대 상: 국내외 누구나. 개인 및 팀별 참가 가능
 시 상: 대상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상금 100만원
 문 의: 가톨릭신문 창간 100주년 준비위원회
 010-9935-7671,
 office.catholictimes.org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노인 상담기법 무료 교육

일 정: 10. 18(토), 25(토)
 시 간: 09:00~ 14:30 (총 2일 10시간)
 내 용: 실제 사례 중심 상담 자세 및
 대화법, 노인 상담기법, 실습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협약서 제출 필요)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실버헬스케어 무료 교육

일 정: 11. 15(토), 29(토)
 시 간: 09:00~ 15:30 (총 2일 12시간)
 내 용: 인지의 이해, 인지 평가,
 인지 운동활동실습 등
 대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협약서 제출 필요)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산자연중학교(대안교육) 학교설명회

일 시: (2차) 10. 18(토) 14:00
 대 상: 현재 초6, 중1
 문 의: 054-338-0530



*전·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성경학교 '순례자들 희년' 이벤트

대 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이
 신 청: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365일 신청
 전과목 50% 할인, 신규강좌 '탈출기'
 문 의: 031-360-7635/ 010-7470-7966

+교구 봉안경당(납골당)

위 치: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983-41 (36855)
 분양 및 예약, 묘지 이장 소개
 사무실: 054-655-1781, 팩스 054-655-1782
 위령미사: 매주 토요일 15:00
 홈페이지: www.안동봉안경당.com